

신나게 즐겨라!...주말 금남로 풍성한 문화잔치



코미디 마임가 일본 코모토 지에미씨.

광주프린지페스티벌 10월 행사

광주문화재단 '동아리페스티벌'

90여 단체 공연·전시·체험행사

빛고을문화관 '썸타는 페스티벌'

금남공원 인형극·가족극 공연

청명한 가을 하늘이 나들이를 부추기는 시기다. 이번 주말 동아리페스티벌, 인형극 축제 등 풍성한 문화행사가 광주·전남 곳곳에서 펼쳐지며 관람객들을 유혹한다.

◇90개 동아리 1천명 참여 '동아리페스티벌' = 광주문화재단이 8일 오후 1시부터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문화다양성 페스티벌'과 지역 90개 단체가 참여하는 '2016년 문화예술동아리 페스티벌'을 연다.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우리누리'는 5개 체험코스와 각종 공연으로 구성된다. 아프리카 전시·음식·전통악기,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이벤트 등 5개 체험을 마치고 스탬프를 받으면 기념품도 증정한다.

'문화예술동아리 페스티벌'은 시민 동아리 활동 성과 발표회다. 10개 분야 90개 동아리 1000여명이 참여해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오후 1시부터 시민동아리들이 광장 메인 무대, 민주의 중앙, 도청별관 앞, 어린이 문화원 정원 등에서 버스킹 공연을 연다.

눈에 띄는 공연은 오키나와, 국악관현악단, 오케스트라, 풍물, 합창단 등 50여개 단체 800여명이 참여하는 합주다. '빛고을 아리랑', '남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또 배짱이뮤직, 광주팝스오케스트라,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프로젝트 앙상블', '앤디엘 코리아커피니'가 난타, 오케스트라, 퓨전국악, 실용댄스 등을 선보인다.

또 문화재단은 8일부터 22일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썸타는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지난 4월 '빛고을시민문

화관 공연장상주단체 운영사업'에 선정된 3개 단체가 그동안 준비한 작품을 초연하는 자리다. 8일 오후 5시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 '삼백날'을 시작으로 10일 오후 7시30분 '아르스필하모니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클래식 여행'(선율), 13일 오후 7시30분 '해피콘서트'(대구심포닉밴드), 21일 오후 7시30분·22일 오후 5시 '노부인의 방문'(극단 사람사이)이 이어진다. 11월2일 마지막 무대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삼백날' 공연이다. 무료 공연. 문의 062-670-7424.

◇금남공원에서 즐기는 인형극 축제 '아트드림 인 파크' = 공연일번지에서 금남공원에서는 8일부터 11월5일까지 매주 토요일(오전 11시·오후 3시)마다 인형극·가족극을 선보이는 '아트드림 인 파크' 축제가 처음 열린다. 극단 파랑새가 지역특화문화거점사업의 하나로 주최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시 등이 후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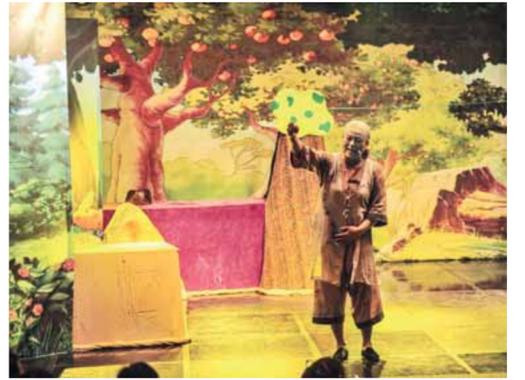
8일 오후 3시에는 공연일번지에서 '속임수에 걸린 피보토키'(극단 파랑새)가 열린다. 15일에는 공연팀 '엘비스 매지'이 나서 공기대포, 소리축정기 등 각종 소품을 활용한 '요요박사와 강릉로봇'을 선사한다. 22일에는 극단 '상사화'의 '인형들의 한마당, 열씨구', 29일에는 극단 '친구들의' 거리에서 만나는 인형극이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 11월5일에는 화이트켓 시어터컴퍼니가 샌드아트 '인어공주', 북화술인형극 '똥돌이와 아빠'를 선사한다. 금남공원에서 할아버지·할머니가 들려주는 동화, 마술, 거리인형극, 비누방울 놀이 체험이 마

련된다. 관람료 전 작품 1만원, 1개 5000원, 체험활동 참여비 2000원. 문의 062-514-4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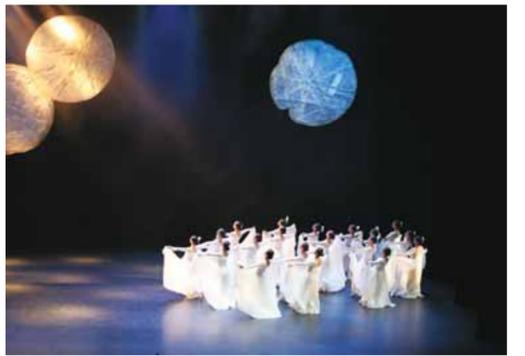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대인야시장 '별장'도 열려 = 동아리페스티벌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에서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도 함께 열린다. 10월에는 '광주생기'를 주제로 솔로전 '채워라 생기, 살려라 느낌'에 맞춰 다양한 공연, 체험이 준비된다. 광장 곳곳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사진전시회, 보이는 라디오, 돗자리파티 등이 열린다.

매주 토요일 밤 찾아오는 대인예술야시장 '별장'은 한글날(9일)을 맞아 '불휘 기쁜'을 주제로 개장한다. 한평 갤러리에서는 29일까지 '한글공생전'을 테마로 김보영, 김희남, 변동섭, 양운희, 양인자, 최명희 등 여섯 명의 작가가 한글캘리그래피 작품을 전시한다. 또 북콘서트 '간서치 책방'도 운영한다. 간서치(看書齋)는 '책만 읽어 세상물정에 어두운 백면서생'을 의미한다. 김경수(향토사), 정윤희(미술), 안태호(문화행정), 윤형석(대중문화), 김도일(문화정책) 등 간서치 14명이 참여한다. 그밖에 고용직 문학평론가가 '시로 읽어보는 당신의 운명'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오후 8시30분에는 이향준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경매사로 나서 책 경매도 진행한다.

대인예술시장 상인회는 코리아 세일행사 주관을 맞아 8일과 15일 대인주차장에서 공연행사를 펼치고 청년상인들은 8일, 15일, 22일, 29일 '찾아가는 역사문화예술 여행'을 진행한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인형극 '속임수에 걸린 피보토키'



김미숙뿌리무용단 '삼백날' 공연.

'골목길에서 만난 양림정신'...한희원미술관 1주년 기념전

7~31일...신작 20점 선 배

지난해 7월 양림동에 문을 연 한희원미술관은 전시 뿐 아니라 '양림살롱', '굿모닝 양림' 등과 어우러지며 지금까지 2만여 명이 다녀간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았다.

한희원미술관에서 개관 1주년과 '2016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7~31일 '골목길에서 만난 양림정신'전이 열린다.

어렸을 적부터 양림동에서 뛰놀며 자란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1년간 양림동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캔버스에 옮긴 신작 20여점을 선보인다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는 '바이올린 켜는 사람, 양림 골목길', 별빛이 반짝이는 '최승효 고택으로 가는 골목길' 등 따뜻한 양림동을 바라보는 작가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또 지금은 사라진 독신 여성 선교사 사택, 옛 양림유교회 등도 작품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바이올린 켜는 사람, 양림 골목길'

그밖에 '기독병원에서 바라 본 양림교회', '오웬기념관, '이장우가옥 가는 골목' 등 근대화유적지도 만날 수 있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한씨는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등에서 전시회를

가졌으며 대동 미술상, 전남연극제 무대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남구 '굿모닝 양림'축제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653-543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산 작가 서평주 광주 개인전 14일까지 공유공간 '뽕뽕브릿지'

부산 서평주 작가가 공유공간 뽕뽕브릿지(남구 월산동 발산마을)에서 광주 첫 개인전 '순간, 오직 스스로 권위를 부여할 뿐'을 14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2016광주비엔날레 기념전'이다.

'AIV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평주는 지난 3개월간 광주에 머물며 작업한 영상, 사진, 애니메이션, 설치 등 작품 7점을 발표한다.

작가는 근현대사 속 고통을 미디어 작품을 통해 드러내며 현대 문제들을 표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루며 불안정한 국가 현실을 풍자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 작품 '그 순간',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등에서 작가가 광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만날 수 있다. 또 사진 '꿈의 궁전'은 도시

속 평범한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며 현실에 대한 풍자가 느껴진다.

부산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서씨는 2009년 중앙 미술대전 작가에 선정되며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부산 '공간 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조선대에서 열린 단체전 '차가운 진실', 2014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에 참여했다. 문의 010-5683-050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꿈의 궁전'

황영성·박석규·송용·박동민·박종수·신동연·박성현·진뢰진·정운태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 11(화) - 11. 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개막일시: 2016. 10. 11 pm 5:00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거리 서문입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대선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전하는 삶의 지혜와 참된 행복의 메시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깊이로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합시다.”

“이 책은 오늘 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중한 양식을 부담 없이 얻을 양서라 아니 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참선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길

진제대선사는 항국대선사로부터 부처님법을 인가받아 경허-해월-운봉-항국대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음,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법승, 현재)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지음 | 진제 대선사 | 가격 | 16,000원 | 팔공총림 동화사 | 053)980-7903 | 해운정사 | 051)746-2256